

■ 질병에 따른 사회적 비용

질병 원인	비용
흡연	2조9천676억원
음주	2조7천917억원
운동 부족	1조2천213억원
과체중	1조4천374억원
영양 결핍	1천201억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술·담배 인한 질병비용 年 6 조원

보사연 '국민 건강 보고서'

흡연과 음주로 인해 연간 6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질병 비용이 소요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운동 부족으로 야기되는 질병 비용도 1조2천여억원이나 됐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 최근 내놓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 비용이 무려 2조9천676억원에 달했다. 이 중 남성이 2조6천588억원, 여성이 3천118억원을 차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흡연율이 높은 남성들의 피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질병별 비용은 기관·폐·기관지암이 5천183억원(17.5%)이나 됐고, 이어 위암(3천580억원, 12.1%), 허혈성 심장질환(2천661억원, 9%), 뇌혈관 질환(2천371억원, 8%), 간암(2천159억원, 7.3%), 기관지염·폐기종(1천817억원, 6.1%), 고혈압(1천657억원, 5.6%) 등의 순이었다.

음주로 인한 질병 비용은 총 2조7천917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는 과도한 알코올로 인한 정신·행동장애가 1조593억원(37.9%)이나 됐다. 다음으로 간암(6천386억원, 22.9%), 간 질환(5천890억원, 21.1%), 뇌혈관 질환(1천226억원, 4.4%), 고혈압(868억원) 등이 많았다.

연말뉴스

후원학원 장학 55% 실시한 영남대학교
남부대학교
www.nsbu.ac.kr
전남과학대학
www.chunnam.ac.kr

12년전 생명선물 주고간 '크리스마스 천사' 위한 기도



고 최연화씨의 신장을 이식받은 주씨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그녀를 위해 기도를 올리고 있다. 기사 속 작은 사진은 연화씨의 생전 모습. /위지량기자 jrwi@kwangju.co.kr

“생명 나누는 우린 하나입니다”

광주시내 한 구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모(51·광주시 남구 진월동)씨에게 크리스마스는 남다르다. 그 자신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지만 크리스마스는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 날이기 때문이다.

주씨의 아파트 한켠에는 마리아상과 촛불로 꾸며진 가족들만의 작은 기도 공간이 있다. 그중에서도 눈을 끄는 것이 환하게 웃고 있는 20대 여성의 빛바랜 사진. 사진은 12년동안 이 곳을 떠난 적이 없다. 주씨 가족 모두에게 사진 속의 사람은 천사다.

사진은 지금부터 꼭 12년 전인 1994년 12월 25일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 최연화(당시 23세)씨의 생전 모습이다. 그녀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새벽 나주시 산정동 나주성당 인근에서 신도들과 함께 새벽 찬송을 하고 있었다. 조선태를 졸업한 교사 지망생이었던 연화씨에게 불행이 닥친 건 잠시 후.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연화씨에게 불행이 닥친 바로 그 날 오후 주씨는 고대하던 전화를 받았다. 신부전증을 15년동안 앓고 있던 그에게 “장기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전남대병원의 연락이 온 것이다. 장기 이식만이 그의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곧 바로 조직적합성

“연화씨 당신은 나의 천사” 12년전 성탄 찬송중 ‘불의 사고’ 5명에 새생명 주고 하늘나라로



검사를 거친 뒤 다음날 새벽 이식 수술을 받았다. 바로 연화씨의 신장이었다. 장기 기증은 아버지 최형석(73·나주시 성북동)씨의 결심에 따라 이뤄졌다. 연화씨의 안구·신장·턱뼈 등은 12시간의 이식수술 끝에 모두 5명에게 새 생명을 찾아 주었다. 주씨는 수술 이후 장기기증자의

가족을 수소문했다. 장기기증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에 부치기 때문에 최씨 가족을 찾아내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드디어 이듬해 5월 주씨는 연화씨 부모에게 연락을 할 수 있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딸의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입니다. 어르신은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던 저를 구해 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최씨는 주씨의 연락에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다”며 손사를 쳤다. 하지만 주씨는 아내와 함께 최씨 부부를 찾아와 “부모님처럼 모시겠다”며 큰절을 올렸다. 그날의 해는 12년째 계속되고

있다. 연화씨의 죽음에 두 가족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준 것이다. 명절 때마다 주씨 부부는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최씨 부부를 찾았다. 최씨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최씨 가족과 주씨 부부는 서로에게 미안해 했다. 아버지 최씨는 “과분한 보답을 받고 있다”고 했다. 주씨는 “너무 자주 찾아가면 괜히 먼저 간 딸 생각을 하게 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아버지 최씨는 “매년 크리스마스 때 딸의 묘지에 가면 누군가가 헌화한 하얀 꽃이 있다”고 말했다. “연화씨와 그 가족은 제게 크리스마스 천사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녀의 뉘까지 열심히 살아주세요.” 건강을 찾은 주씨는 최근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또 다시 12년, 크리스마스. 나주시 나주읍 가톨릭묘지에 있는 고 최연화씨의 묘소에는 어김없이 하얀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제대로 확인도 않고...사과 받아야”
“국민이 어떻게 들었는가가 중요”

盧-高 ‘舌戰’ 점입가경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21일 ‘고건 인사 실패’ 발언 이후 청와대와 고 전 총리가 연일 설전을 벌이며 날카로운 대답각을 세우고 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24일 고 전 총리가 전날 ‘국민에게 전달된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청와대의 생명을 반박한데 대해 ‘전달된 것보다 사실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생명을 냈다. 청와대는 이날 “그가 말하는 사리도 어렵고, 이전의 그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책임있는 사람은 보도만 보고 남을 비방하지 않는다” 등의 자극적 수사로 고 전총리를 공격했다.

고 전 총리는 그러나 이날 “오늘은 그 얘기 안할 것”이라고 반응을 하지 않았다. 홍보수석실에까지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한 측근은 “고 전 총리가 둘러서거나 고개를 숙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3일 노 대통령은 고 전총리의 21일 비난성명과 관련, 휴일인데도 이례적으로 참모회의를 소집, “그를 나쁘게 말한 일이 없다”면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나를 공격하니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사과라도 해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전했다.

고 전총리는 이에 대해 이날 열린 한 행사에서 “대통령께서는 진의가 아니라고 하시던 데 일반 국민이 무슨 뜻으로 들었는가가 중요하다”며 공방전을 벌였다.

이같은 양측의 공방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고 전 총리의 신당행보에 제동을 걸기 위해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고 전 총리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 대통령과 더 철저히 차별화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급지원병 2만명 운영

軍, 2008년 시범 실시...1년간 대졸초임 임금 지급

군 당국은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할 ‘유급 지원병’을 2만여명 수준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확인됐다.

군 소식통은 24일 “2011년부터 시행하는 유급지원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2020년까지 2만여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김장수 국방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난 15일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이런 계획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유급지원병은 병역의무가 끝난 병들이 군에 남기를 희망하면 이들이 병 신분으로 일정기간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국방개혁안에 명시되어 있다.

즉 육군과 해병대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7개월인 현행 의무복무 기간을 채운 병들이 군대에 계속 남

아 국가에 헌신하기를 희망하면 선별적으로 수용해 1년 가량 대졸 초임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군은 유급지원병제를 2008년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유급지원병은 장기간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전문직 분야에 주로 배치될 예정이며 군내 전문직군 소요를 감안해 2만여명 수준으로 유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내년 중으로 급여 및 복지, 계급 등 유급지원병제도 시행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유한양행
www.yuhan.co.kr
광고심의필 : 899-1000

초기감기 퇴장! 콘택골드!

초기 감기약 - 콘택골드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 걸렸거나 생각되면 초기 감기약 콘택골드로 퇴장시키세요!
불청객 감기의 파를 플레어인 콘택골드를 잊지마세요!

“바른약만 골라 먹고, 잘못된 약이 없도록...
안녕하세요.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은...
유한양행은...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4대기 상하동 080-024-1188(수신사) 유한양행 062-322-5400 (대) 062-322-0615 (국) 049-527-3033 부산 051-982-4071